문학을 활용한 통합영어수업의 학습자 그룹저널에 나타난 공감성 분석

An Analysis of Empathy Represented in Students' Group Journal of Integrated English Class Using Literature

최민주*, 김정렬**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Minju Choi(minju9570@google.co.kr)*, Jeong-ryeol Kim(jrkim@knue.ac.kr)**

요약

본 연구는 문학을 활용한 통합영어수업의 학습자 그룹저널에 나타난 공감성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충북소재 K고등학교 2학년 1개의 반에 속한 15명의 고등학생(남학생 2명, 여학생 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학을 활용한 영어 수업의 다수가 읽기지도에 치중한 점을 보완하여 통합영 어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의사소통능력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문학작품에서 주인공이 처한 상황에 학습자가 직접 공감하도록 수업을 진행하였다. 학습자의 공감성을 분석하기 위해 2차시에 걸쳐 통합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진행된 수업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전사하였다. 공감성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언급한 공동체 역량에 근거하여 기준을 세웠으며 학습자들로 하여금 주인공의 입장에서 그룹저널을 쓰도록 하였다. 학습자의 그룹저널을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은 소설 속 시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보였다. 또한 현재 자신의 모습을 소설 속 주인공의 모습에 투영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주인공의 입장에서 글을 썼지만 각 조마다 공감하는 부분이 상이했으며 작품 속 인물의 내면세계에 대해 공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학을 활용한 통합영어수업의 학습자 그룹저널에 나타난 공감성에 대한 분석 자료는 차후 문학을 활용한 수업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어: | 문학을 활용한 수업 | 통합영어수업 | 공감성 |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mpathy represented in the learners' group journal of integrated English class using literature. 15 high school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class. In this study, integrated English class using literature was carried out by supplementing the point that amount of the English classes using literature had been focused on reading activities. In addition, not only communicative abilities but also learners' empathy to the main character in the literary was taught. In order to analyze the empathy expressed in learners' group journal, the integrated English class using literature was conducted in the second period and the class was recorded by video. The empathy was based on the community competence mentioned i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and learners were asked to write the group journal.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learners showed an understanding of the context in the novel and learners' group journal showed that their empathy to the main character in the novel. It is expected that the data on the empathy represented in the learner group journal of the integrated English class using literature will be used in English class.

■ keyword: | English Class Using Literature | Integrated English Learning | Empathy |

접수일자 : 2017년 12월 28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1월 31일

수정일자 : 2018년 01월 31일 교신저자 : 김정렬, e-mail : jrkim@knue.ac.kr

l. 서 론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에 의하면 학교 영어 교육 은 의사소통능력을 갖추어 세계인과 의사소통을 하며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더불어 우리의 문화를 세계로 확장시킬 인재를 육성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1]. 이와 같이 의사소통능력의 신장뿐만 아니라 고등정신을 함 양하는 것이 영어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부각되고 있으 며 이러한 고등정신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을 활용한 영어 학습활동이 효과적일 수 있다[2]. 또한 다수의 ESL 또는 EFL 영어 수업 환경은 실제 상 황과 유리된 환경에 처해있어 학습자들이 영어를 습득 할 때에 자연스럽게 영어를 구사하지 못한다 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문학 작품을 활용하여 언어 교육을 진행한다면 실제 생활과 유사한 경험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내기에 진정성(authentic)있는 언어를 제공할 수 있다[3]. 뿐만 아니라 문학에서 다루는 주제는 기본적인 인간사와 범지구적인 내용이며 학습동기를 유발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외국어 교실상황에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4]. 즉 문학작품을 활용한 영어 수업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따라 2015개정교육과정[1]에서는 학생 중심의 활동을 통해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배 양하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통해 인성을 기른다는 교 육목표아래 진로 선택 영역에서 영미 문학 읽기과목을 추가하였다. 영문학 작품에 대한 수업은 주로 대학교 영어영문과 혹은 영어교육과에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의 학생들은 영문학자가 되고자 영문학을 공부하기 보 다는 실용영어능력 증진을 목표로 하기에 작품분석 또 는 이론에 초점을 둔 영문학 수업은 폐강을 초래해왔다 [5]. 또한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진 대다수의 문학작품을 활용한 수업은 [8-11] 같이 읽기 및 독해 지도에 관한 연구가 다수였으며 의사소통능력을 함양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소 멀어 보인다. 박병주(2010)는 토익이나 토플에서 고득점을 받았을지라도 실제상황에서의 회화 나 작문에 서투르며 단순한 정보전단 수준에 머무르는 이유로 영미권 국가에 대한 사회나 문화적 이해가 결여 됐기 때문이라고 하였다[5]. 하지만 여전히 기존의 연구에서는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읽기수업을 진행하는 연구가 대다수를 이루었다.

우리나라와 같은 EFL 황경에서 문학을 활용한 수업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이 있으며 2000년대 중반 이전에 실행된 문학수업을 현장에서 활용하기위한 문헌고찰 연구와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수업지도 방안에 대한연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도수(1998)은 당시에 우리나라 교육에 문학작품이 자주 활용되지 않는 점에 대해 이야기 하였으며 그에 대한 이유로 입시제도, 문학을 활용한 수업에 대한 교사교육 부족, 문학자료의 부재 등을 꼽았으며 이에 따라 문학수업을 활용할 방안과 수업의 목표 등을 제안하였다[6]. 한상택(2001)은 문학텍스트를 활용하여 실행한 수업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반응과 모의 수능 점수와 교내 고사 평균점수가 상승되었다고 하였다[7].

2000년대 중반부터 시행된 연구 중 하나인 나경희 (2005)는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영어독해력 향상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문학작품과 학습동기에 대해 분석하였다[8]. 박성수(2006)는 영미단편소설을 이용하여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영어 독해를 지도하였다[9]. 지주형, 이충헌(2006)은 문헌 연구를 통해 고찰된 열 개의 읽기 기법과 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읽기 활동을 포함한 읽기 수업 모형과 지도안을 제시하였다[10]. 강문순, 박은진(2012)은 영어 단편소설을 활용한 고등학교 읽기지도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11]. 임병빈, 진구환(2003)은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영어쓰기 능력 향상에관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문학작품을 활용할 경우에 쓰기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12].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분석 결과 2000년대 중반 이전의 선행연구들은 문학작품을 활용한 수업의 방안에 대한 문헌적 고찰연구였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시행된 연구의 다수가 읽기지도에 관련된 연구였다. 위의연구들은 EFL 학습 상황에서 문학작품을 활용하여 수업을 했을 경우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보였지만여전히 의사소통능력의 항상보다는 단순한 정보전달차원이자 언어의 네 가지 기능 중 하나인 읽기활동 또는 쓰기활동에 머물러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단순한 읽기활동 또는 쓰기활동을 넘어서 문 학작품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 학습자들에게 서 나타날 수 있는 고등정신능력은 무엇이 있을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영어과 핵심역량 중 공동체 역량은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치와 태도를 공유하고 공동체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할 수있는 능력이며 배려와 관용, 대인 관계 능력, 문화 정체성, 언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을 포함한다[1]. 다시 말해 상대방을 이해하고 포용할 수있는 능력과 이를 활용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공감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학작품을 활용한 수업에서 읽기능력과 쓰기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영미문학을 활용한 통합수업을 진행하여 학습자에게서 나타난 공감성을 분석하고자한다.

11.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북소재 K고등학교 2학년 1개의 반에 속한 15명의 고등학생(남학생 2명, 여학생 1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영어권 국가에서 어학연수 또는 생활을 한 경험이 없었으며 국내에서만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수업에서는 3인 1조로 진행되어 15명의 학생들이 총 5개의 그룹에 속하여 수업이 진행되었다.

2. 교재 및 수업 절차

2.1 사용 교재

본 연구에서 활용된 문학작품은 미얀마 출신 영국군 인 작가인 Saki의 The Open Window이다. The Open Window는 N사의 검인정교과서인 영어독해와 작문에 수록된 작품 중 하나이다. 총 1214개의 어휘로 구성되 어 있으며 초등교육과정 어휘가 74%, 중등 교육과정 어휘가 16%로 교육과정에 속하는 어휘가 약 90%로 구 성되어 있다. 또한 약 9%의 어휘가 이름, 지명과 같은 대명사들로 구성되어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수한 학습 자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텍스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 활용하였다.

The Open Window가 쓰인 19세기의 영국귀족은 이 방인에 대해 굉장히 배타적인 모습을 보였다. 예를 들어, The Open Window의 작가인 Saki는 영국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지만 미얀마 출신이라는 이유로 본토에서 배척받았다. Saki는 이 당시에 느꼈던 본인의 경험과 감정을 작품에 담아내었다.

작품의 내용은 당시의 이방인에 배타적인 모습을 보 이는 영국귀족층을 비판하는 내용을 Mr. Framton과 Vera의 모습을 통해 그려내었다. 신경쇠약을 앓고 있는 Mr. Framton이 휴식을 위해 그의 누이가 한때 같이 살 았던 Mrs. Sheperton의 집으로 찾아가며 시작된다. 집 에는 Mrs. Sheperton의 조카인 Vera가 있었고 그녀가 Mr. Framton을 맞이하였다. 당시에 이방인에 대해 배 타적이었던 영국귀족층이었던 Vera는 Mr. Framton의 방문이 탐탁지 않아 그를 내쫓고자 하였다. Vera는 당 시에 집안 거실에 있던 열린 창문을 보고 Framton을 쫓아낼 거짓말을 생각해낸다. 3년전 Mrs. Sheperton의 남편과 그의 두 명의 동생이 사냥을 나갔지만 집에 돌 아오지 못하고 세 명의 시체를 찾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었다. Framton은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애써보지만 마 침 정말로 사냥을 끝마치고 돌아온 세 명을 보자 귀신 이라 착각하여 집을 뛰쳐나간다.

2.2 수업 절차

위의 작품을 활용한 수업은 김은주(2001)모형을 기초로 하여 2차시로 진행하였다. 모형에 의하면 문학 작품을 지도 할 때는 해석 전(Preinterpretation) 단계, 해석 후 (Interpretation) 단계, 종합(Synthesis) 단계, 해석 후 (Postinterpretation) 단계로 나누어 문학 작품을 지도할수 있다. 해석 전 단계에서는 일반적인 읽기활동에서 읽기 전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읽기활동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작품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킨다. 이에 따라해석 전 단계에서는 작품의 배경 지식, 작품 구성에 대한 이해, 등장인물, 무대, 사건 등 기본적인 이해를 하여해석단계를 위한 준비를 한다.

두 번째 단계인 해석 단계는 해석 전 단계에서 실시 하였던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의 내용과 독자 의 경험, 지식, 감정 등을 연결시켜 작품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한다.

이어서 세 번째 단계인 종합 단계에서는 작품에 대해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의 경험을 기본으 로 하여 작품을 평가하고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는 기회 를 갖는다.

네 번째 단계인 해석 후 단계에서 학생들은 작품의 종합적인 이해를 기본으로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 해서 회고하고 작품의 일부분을 재구성하거나 창조하 는 기회를 갖게 된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구성한 수업의 목표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수업 목표

차시	수업목표
1차시	S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background of English 19th century, Ss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e hidden meaning of the Open Window written by Saki in 19th century,
2차시	Ss will be able to appreciate the original text of Vera's utterances, Ss will be able to write a journal.

위기 전 단계에서는 문학 작품이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켜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도록 한다. 이에 따라 1차시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작품이 쓰인 시대배경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작가와 작품의 장르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품에 있는 어휘 중 교육과정 이외의 어휘를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영상으로 제작된 the Open Window를 시청한후 몇 가지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가 포함된 한 문단으로 요약된 자료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과 함께 전체적인 내용을 점검하고 학습자들에게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 작품에 존재하는 숨겨진의미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석 후 단계에서는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토 대로 작품의 일부를 재구성하고 나름대로의 해석을 부 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차시에서는 원 문에서 Vera가 Mr. Framton에게 거짓말을 하는 장면을 학습자들과 함께 희극처럼 연극을 하였다. 다음으로학습자들에게 1차시에서 학습한 내용과 2차시 처음 연극했던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각자 주인공의 입장에 서서 저녁에 일기를 쓴다고 가정하고 글을 쓰게 하였고, 필요하다면 그림도 추가하도록 하였다.

4.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우선 2차시에 걸쳐 진행된 수업을 비디오로 녹화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비디오를 전사하였으며 전사된 자료에서 도출되는 내용과 본 연구의 연구목적을 명확하게 하고자 지속적으로 정독하였다. 또한 2차시에 학습자들의 쓰기 결과물이 공감성을 분석하기위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언급한 영어과 핵심역량 중 공동체 역량은 공동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과 배려와 관용, 대인 관계 능력, 문화 정체성, 언어 및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및 포용 능력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동체 역량 중 후자의 능력에 주안점을 두고 학습자들의 목표 문화에 대한 이해, 작품에 나타난 배경과 주인공의 상황에 대한 이해, 학습자자신을 작품상황에 투영하는 능력을 공감성으로 분류하여 학습자의 그룹저널에 나타난 공감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Ⅲ.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활용한 수업에서는 1차시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크게 작품이 쓰인 시대상황 및 배경에 대해서 학습하였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학습자들은 Saki의 the Open window가 쓰인 19세기 유럽의 제국주의에 대해 공부하고 이후에 영국과 미얀마의 상황, 작가의 출생 및 일대기, 그리고 작품의 장르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였다. 이후에 학습자들이 문학작품을 바로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문체와 표현들이 있어 학습자들에게 영상으로 제작된 the Open Window를 보여

주었다.

다음으로 1차시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2차시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the Open Window에 주인공인 Vera와 Framton 둘 중 한명을 선택하여 그들의 입장에서 직접 그룹 저널을 작성하였다. 이러한 활동을통해 학습자들이 그들의 일기 속에서 문학작품에 나타난 주인공에 입장에 처한 상황에 공감하고 현재의 자신을 주인공에 투영하는 공감성을 보였다.

① 1조의 일기 중 발췌

His visit was terrible I thought, I wanted to say "Go Away" but I couldn't, ···중략··· My plan was super-successful! I think I can be a super-cool storyteller, LOL

1조의 일기에서는 Vera의 입장에서 일기를 쓴 내용이다. 학습자들이 일기를 쓰기 전 접했던 원문, 영상자료, 요약자료에서는 Vera가 직접적으로 Framton의 방문을 싫어한다는 묘사 또는 언급이 없었다. 하지만 위의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이 수업을 통해 시대상황을 이해하고 Vera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며 일기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세기의 상황이지만학습자들은 마치 본인이 직접 일기를 쓰듯이 21세기 현대시대에 활용되는 어휘를 많이 사용하였는데 'super-'라는 접두어와 채팅용어인 'LOL'에서 그러한 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② 2조의 일기 중 발췌

They must have been ghost....... So, I ran out of that strange, frightening house, I "WILL" NEVER! NEVER! go back there.

2조의 일기에서는 1조와는 다르게 Framton의 입장에서 일기를 썼다. 2조의 일기에서는 다수의 말줄임표가나타났는데 이러한 기호들은 신경쇠약을 앓고 있는 Framton의 입장을 공감하여 글을 썼다고 볼 수 있다. 또한 'WILL'과 NEVER!에 각각 따옴표와 대문자, 그리고 느낌표를 활용하여 주인공의 입장에서 당시의 상황을 느끼고 공감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1. 2조의 일기

2조는 일기에 그림을 그렸는데 Vera의 모습을 악마와 같은 모습으로 그렸다. 학생들에게 그림을 그린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학습자들은 "제가 신경쇠약을 앓고 있다면 Vera의 모습이 이렇게 보일 것 같아서요."라고 답하였다.

③ 3조의 일기 중 발췌

Today, a stranger came to my house. He seemed weired. I didn't like him. …중략… I decided to make him leave, So, I cheated him. …중략… I liked the change of his face. …중략… No one will know what I did. I want another strager to come my house again.

3조의 학습자들은 일기를 쓰기 전에 본 수업을 진행한 연구자에게 사춘기를 겪는 십대의 입장에서 일기를 쓰겠다고 하였다. 위의 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유 없는 반항과 그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남을 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소설의 Vera의 입장에 서서 장난기 넘치는 본인들의 십대 모습을 일기에 담아내었다. 또한 텍스트에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3조의 일기에서는 스펠링이 틀린 어휘를 두 줄로 그어놓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학습자들은 "저희는 일기를 쓸 때 이렇게 편하게 써요." 라고 말하였다.

④ 4조의 일기 중 발췌

···중략··· He looked nervous, I asked him about tragedy to him. It was just fiction, but he believed it! I was more and more excited, ····중략··· He was so surprised that he rushed. It was nice, ····중략···

4조의 경우에는 원래 Framton의 입장에서 일기를 쓰기로 되어있었지만 학습자들이 Vera의 입장에서 일기를 쓰고 싶어 하여 Vera의 일기로 바꾸게 되었다. 여자로만 그룹이 이루어져있어서 동년배이자 같은 성별인 Vera의 입장에서 글을 쓰기가 쉽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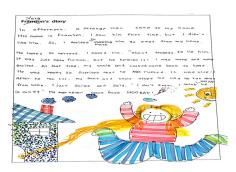


그림 2. 4조의 일기

또한 4조의 경우에는 학습자들이 굉장히 밝은 성향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러한 학습자들의 성향이 일기에도 드러났다. 매우 어두운 분위기인 2조의 일기에 반해 4조의 일기에서는 형형색색의 펜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 렸으며 일기의 내용에서도 마찬가지로 밝은 모습이 투영되었다.

⑤ 5조의 일기 중 발췌

···중략··· I didn't like that he comes and stays in our house. So, I tried to get him away from our house. ···중략··· As soon as Framton saw them, he ran away, I didn't know that he were really frightened. Even my aunt was satisfied too, when she heared that he ran away because of my lie. TT

5조의 일기에서는 다른 조와는 다르게 학습자들의 Vera의 입장에서 후회하는 모습을 일기에 담아내었다. 장난기 많고 놀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본인이 행한 장난이 남들에게 상처가 되었다는 상황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문학을 활용한 통합영어수업의 학습 자 그룹저널에 나타난 학습자의 공감성에 대해 분석하 였다. 기존의 연구[8-11]에서는 문학을 활용하여 영어수업을 진행하였지만 대다수가 읽기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학을 활용한 통합영어수업을 진행하였고 수업 중 학습자들이 직접 쓴 그룹저널에서 나타난 공감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의 공감성을 이끌어내는 수업을 문헌고찰을 통해 설계1하였고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우리나라와 같은 EFL 학습 환경에서는 영어를 습득하기에 목표어에 대한 노출시간이 부족하고, 학교 영어수업에서도 자연스러운 영어 사용 환경을 제공하기 어렵다[15]. 하지만 [2-4]에서 말하였듯이 EFL 학습 환경에서 문학작품을 활용한다면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스러운 영어 사용 환경의 제공과 의사소통능력의 증진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정의적인 능력 중 하나인 공감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학을 활용한 수업의 내용이 학습자들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기회가 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학습자의 동기와 흥미차원에서 문학을 활용한 수업은 효과적일 수 있다. 학습자가 영어로 일기를 쓰거나 편지를 쓸 필요성을 느낀다면 학습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글을 쓰게 된다. 이에 따라 교사가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관리, 개발하고 실행한다면 영어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15].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습자들은 그룹 저널을 쓸필요성과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학습자의 쓰기 결과물에서 공감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FL 언어 학습 상황에서 문학작품은 학습자들이 흥미를 느끼고 필요성을느낄 하나의 학습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의 소설 속 주인공의 입장에서 쓴 일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주인공의 상황에 감정이입을 하여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엿보았다. 또한 왜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였고 이를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확장하고 성숙시킬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학습자들은 타인에 상황에 공감하고 자신의 모습을 그들의 모습에 투영하였다. 이러한 공감성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교육목표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후의 후속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수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한 개의 반에서만 실시한 수업의 활동인 일기쓰기에 나타난 학습자의 공감능력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문학작품을 활용한 반과 그렇지 않은 반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학습자들의 공감능력이 점차 함양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통시적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 헌

- [1] 교육과학기술부, "영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2015.
- [2] 김은주, "영어 교실에서의 창의력 신장을 위한 문학작품의 활용방안," 교과교육학연구, 제5권, 제1호, pp.107-121, 2001.
- [3] Lazar, Literature and language teach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4] J. Collie and S. Slater, *Literature in the language classroom: A resource book ideas and activ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5] 박병주, "영문학 교육을 통한 영어능력 향상 방안 연구 정의적 요소 활용을 중심으로 -," 영어교 과교육, 제9권, 제2호, pp.157-172, 2010.
- [6] 이도수, "영어 문학자료를 중등학교 영어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영어 소설 자료를 중심으로," 영미 어문학연구, 제14권, pp.18-19, 1998.
- [7] 한상택, "영어능력 개발을 위한 문학텍스트 활용 방안," 영어어문교육, 제7권, 제1호, pp.179-207, 2001.
- [8] 나경희, "현대 문학작품 읽기를 활용한 EFL 학습 자들의 영어독해력 향상방안 탐색," 언어학 연구, 제9권, pp.77-95, 2005.
- [9] 박성수, "언(영)어 학습자 문학(영미단편소설)을 이용한 고등학교 영어 독해지도 전략 연구," 학습 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6권, 제1호, pp.145-162, 2006.
- [10] 지주형, 이충현, "고등학생의 영어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영미소설의 활용," 비교문화연구, 제10권, 제2호, pp.149-186, 2006.

- [11] 강문순, 박은진, "영미 단편소설을 활용한 고등학교 읽기지도 방안," 교육연구, 제20권, pp.31-55, 2012.
- [12] 임병빈, 진구환, "문학작품을 활용한 영어쓰기 능력 향상 방안," 현대영미어문학, 제21권, 제3호, pp.227-252, 2003.
- [13] S. N. Harper, "Strategies for teaching literature at the undergraduate level," The Modern Language Journal, Vol.72, pp.402–408, 1988.
- [14] J. L. Shrum and E. W. Glisan, Teacher's handbook: Contextualized language instruction, Heinle, 1994.
- [15] 서민원, "윤치호 영어 일기와 영어 쓰기 교육," 한국 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호, 제8권, pp.528-541, 2014.

저 자 소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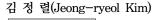
최 민 주(Minju Choi)

준회원



- 2016년 2월 : 한밭대학교 영어영 문학과(문학사)
- 2018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영 어교육과 석사

<관심분야> : 문학을 활용한 수업, 공감성



정회원



- 1996년 ~ 현재 : 한국교원대학 교 초등교육과 교수
- 2012년 ~ 현재 : 한국영어다독 학회 회장
- 2011년 ~ 2012년 : (전) 초등영 어교육학회 회장
- 2013년 ~ 2014년 : (전) 외국어교육학회 회장
- 2012년 ~ 현재 : Extensive Reading Foundation 이사
- 2014년 ~ 현재 : Reading in Foreign Languages 저 널 편집이사
- 2015년 ~ 현재: 교육부 교육과정심의위원 <관심분야>: 컴퓨터활용 영어교육, 초등영어교육, 영 어교수법